

공문서 감축 목표량 초과 달성

도교육청, 2015년 대비 작년 6.9% 줄여... "불필요 공문서 생산 최소화 지속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문서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문서 감축량이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생산한 공문서 총량은 4만980건으로, 2년 전인 2015년의 4만4,037건에 비해 6.9%(3,057건) 줄었다.

이는 각 부서의 감축 목표량인

2.03%(894건)에 비해 4.87%포인트(2,163건) 더 감축한 결과다.

이 기간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들의 공문서 발송도 크게 줄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2015년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총 3만6,754건을 단위학교에 발송했으나, 지난해에는 2만9,770건으로 19%나 감축했다.

또 직속기관은 2015년 12개 기관에서 총 2,466건을 생산했으나, 2017년에는 2,353건으로 4.6% 줄었다.

도교육청은 올해에도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을 통해 교직원 업무 경감과 행정능률 향상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각 실과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들에 ▲학교에 통계자료 요구 시 사전에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활용 자료 추출 ▲공문서 제목 앞에 공문의 성격 용어표시제 시행(제목만으로도 공문의 성격과 중요도 변별 가능) ▲학교에 안내 공문

을 발송해야 할 경우에는 공문 게시기능 적극 활용 ▲공문서 감축을 위한 직무교육 및 자료집계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등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공문서 감축 목표를 2년마다 설정하고 강력한 공문서 감축 정책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단위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문서 감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모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호원대 학습유형별특강 성료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일, 9일, 16일 3일에 걸쳐 학습유형별특강 시리즈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학습유형별특강은 2017학년부터 학습유형검사와 연계해 실시하는 사후 프로그램이다. 학습유형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성향, 버릇, 생활습관과 학습방법을 파악하고 학습유형을 진단한 후, 유형별로 특강을 실시해 학생들이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학습유형별특강은 16개의 학습유형 중 스포츠관람형, 컴퓨터프로그래머형, 건축설계사형에 해당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5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모씨는 자신의 학습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매우 유익한 특강이었다는 후기를 남겼으며, 김모씨는 공부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문화사랑방 · 건강지킴이 역할 토크

전주 모퉁지작은도서관 야간 한방 건강특강 진행



전주시 모퉁지작은도서관은 지난 17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인 삶과 피로'를 주제로 한 야간 한방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전주시 모퉁지작은도서관은 지난 17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인 삶과 피로'를 주제로 한 야간 한방 건강특강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강좌에는 '2017년 전북도 인물대상' 의류부문을 수상한 강익현 한의학 박사가 강사로 초청돼 △건강 삼위일체 △건강에 필요한 3가지 요건 △구조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문제 △부교감신경과 무의식의 정화에 의한 치유현상 등 참석자들이 피로의 유형을 알고 정기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김모자 씨(77)는 "평소 작은도서관에서 요가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오늘 건강과 관련된 강까지 들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3월 서곡지구에 문을 연 모퉁지작은도서관은 개관 이후 시민들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명실상부 동네사랑방의 역할을 토크하고 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은 "모퉁지작은도서관은 다른 작은도서관과 비교해 성인 건강을 위한 '요가' 및 '실버웰빙체조' 등 주민자율 운영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이번 강좌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을 선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북대-전주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1년 연속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전북대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지원하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8억1,3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전북대는 지난 2008년 입학사정관제 실시 이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1년 연속 선정돼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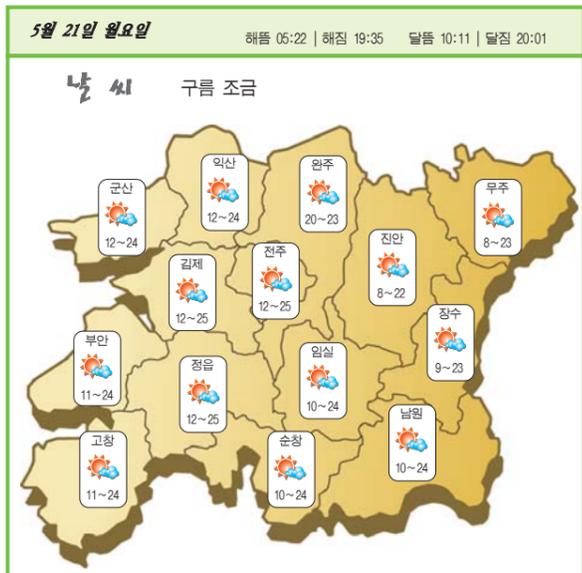
이번 선정에서 전북대는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역량 강화, 고교-대학 연계 강화, 고른 기회 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 강화 등 실질적인 공교육 정상화 개선 효과를 이끌어 내는 등 거점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대도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12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전주대는 2008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10년 동안 수행해 왔다. 그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을 2019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수시 선발비율을 90%까지 늘려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고교교육 내실화 부분과 대입전형 단순화·공정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동취재반



그늘막에서 더위 피하세요

전주시, 한옥마을 관광객 위해 9개소 설치

전주시가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올 여름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쉼터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고온다습하고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 관광객이 무더위와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경기전 담장 옆 벤치와 은행로 물레방아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전주한옥마을 내 9개소에 그늘막(아트차일)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설치될 아트차일은 오는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그늘막(아트차일)의 디자인과 설치 장소는 한옥마을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을 최대한 고려해 관광객을 일사병 등 은열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다.

특히, 그늘막(아트차일)은 전통한옥과 어울릴 수 있는 색상 등을 고려해 전주한옥마을과의 이질감을 줄이도록 노력했다.

우선, 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전 담장 옆 벤치 △은행로 물레방아 앞 △전통문화연수원 앞 등 전주한옥마을 내 3개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했다.

또한, 한옥마을 외곽에는 △기린대로 한옥마을 버스정류장 △오목대 입구 △르윈호텔 △남천교 횡단보도 △풍남문 광장 △전동성당 횡단보도에도 그늘막이 설치돼 교통신호와 버스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기동취재반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올 여름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쉼터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